

濟泌別汁과 分別淸濁에 대한 比較考察

¹嘉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金鍾鉉^{1, *}

A Comparative Study on Jebibyuljeub(濟泌別汁) and Bunbyulcheongtak(分別淸濁)

Kim Jong-hyun

¹Dept. of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fer the effect of superficies-resolving herbs by analyzing effect terms which have extracted and refined, based on four temperatures and five tastes.

Methods : Firstly, temperatures, tastes and effect terms were extracted from the 27 kinds of superficies-resolving herbs written in Herbology. Then, each effect terms was divided into single meaning term and refined as typical term, using the inclusive effect terms I established. After that, herbs were grouped by tastes and found the effect terms which are mentioned most frequently.

Results & Conclusions : All the superficies-resolving herbs can have wind-dispelling effect and superficies-resolving effect, except Bulpleuri Radix. This herb is able to has just the wind-dispelling effect. And it's more appropriate to categorize Bulpleuri Radix to heat-clearing herb group than superficies-resolving herb group, considering its several, distinctly cold characteristics. Some effects are concentrated to wind-cold-dispersing herb group and others to wind-heat-dispersing herb group. Each tastes has its own representative effect group.

Key words : classification, informatics, superficies-resolving herb, effect term, four temperatures, five tastes, terminology

* Corresponding Author : Kim Jong-hyun.

Dept. of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Tel : +82-31-750-8724, E-mail : ultracoke82@gmail.com

Received(January 23, 2018), Revised(February 01, 2018), Accepted(February 02, 2018)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序 論

일반적으로 泌別清濁은 腐熟된 水穀의 清濁을 구분하는 小腸의 기능이며 小便의 형성과정에 관여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小便과 관련한 病證에서 小腸을 치료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며, 泌別清濁이 津液의 대사과정에서 膀胱, 脾, 肺, 腎의 기능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다. 이와 연관된 문헌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점 하나는 泌別清濁이 滑壽가 저술한 『十四經發揮』(1341)에 처음 등장하며, 이전의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 유래에 관한 의문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靈樞·營衛生會』에 보이는 濟泌別汁과 『難經·三十一難』의 分別清濁을 그 원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泌別清濁과 연관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濟泌別汁과 分別清濁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서적이거나 논문에서 濟泌別汁과 分別清濁은 거의 동일한 작용으로 설명되었다. 이는 『營衛生會』와 『三十一難』의 주제가 유사하고, 注釋에서도 서로를 인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濟泌別汁과 分別清濁은 서로 다른 문헌에서 사용되었고, 표현상의 차이가 분명하며, 해당 문헌에서는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한 바 없다. 따라서 각각이 가리키는 의미를 파악하고 차이점은 없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지금까지 여기에 주목한 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靈樞』와 『難經』에 나타난 濟泌別汁과 分別清濁의 의미를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는 두 작용이 동일한 의미인지를 검증할 뿐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泌別清濁의 의미를 이해하는 근거가 될 것이며, 넓게는 한의학에서 설명하는 소화 흡수와 진액대사 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선행 연구들을 검색한 결과 濟泌別汁과 分別清濁의 기능을 직접 비교한 경우는 찾을 수 없었으며 泌別清濁의 기능을 연구한 송¹⁾, 劉²⁾의 논문, 인체

의 진액 대사를 연구한 오³⁾의 논문, 臟腑의 기능에 대한 王⁴⁾의 논문에서 몇 차례 언급된 정도이다. 그러나 泌別清濁, 濟泌別汁, 分別清濁이 의미상 차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한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연구 과정에서는 濟泌別汁과 分別清濁이 처음 나타난 『靈樞·營衛生會』와 『難經·三十一難』의 본문과 관련 주석을 분석하였다. 특히 濟泌別汁과 分別清濁이 수곡의 섭취 이후 三焦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 속에 설명된 작용이며, 두 篇이 일관된 구조로 서술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篇의 전반적 서술 흐름과 전후 맥락 파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했다. 고찰에서는 두 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膀胱 內 津液의 의미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앞선 결과를 토대로 小腸의 泌別清濁에 대한 현대의 풀이가 적절하지 검토하였다.

II. 本 論

1. 濟泌別汁

黃帝曰 願聞下焦之所出. 歧伯答曰 下焦者, 別迴腸, 注于膀胱, 而滲入焉. 故水穀者, 常并居于胃中, 成糟粕, 而俱下于大腸, 而成下焦, 滲而俱下, 濟泌別汁, 循下焦而滲入膀胱焉. (靈樞·營衛生會)⁵⁾

濟泌別汁은 『靈樞·營衛生會』의 三焦에 관한 서술 중 下焦 部分에 보인다. 濟泌別汁 대한 기존의 해석과 篇의 전체적인 서술 맥락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원전학회지. 23(2). 2010. pp.225-233.

- 2) 劉巨海 外 3人. 小腸泌別清濁功能考辨. 江蘇中醫藥. 48(4). 2016. pp.68-69.
- 3) 오재근, 윤창열. 水穀의 運化와 배출.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1(4). 2008. pp. 249-260.
- 4) 王振國. 臟腑功能辨析. 山東中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pp.19-23.
-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20.

1) 송지청 外 2人. 大小腸 泌別清濁에 관한 考察. 대한한의학

1) 濟泌別汁에 대한 기존의 해석

濟泌別汁의 字義에 대해 張介賓은 ‘濟’는 ‘沛’와 통하여 술을 거르는 것과 같고, ‘泌’는 ‘狹流’이며, ‘別汁’은 清濁을 分別하는 것이라 설명했다.⁶⁾ 같은 맥락에서 郭霽春은 濟泌別汁을 ‘水(泌)를 제거(濟)하고 汁을 分別(別)함’으로 풀이했다.⁷⁾ 이에 반해 黃元御는 “濟, 齊, 泌, 分也.”라 하여⁸⁾ ‘濟’와 ‘泌’를 모두 동사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해당 문장이 다른 문헌에 인용된 예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 『素問·咳論』의 王水注에는 濟泌別汁이 ‘泌別汁’으로 되어있어서⁹⁾ ‘泌’를 동사로 볼 수 있다. 또한 『甲乙經』에는 ‘滲泄別汁’으로 되어있어서¹⁰⁾ ‘濟泌’가 ‘滲泄’과 같은 의미의 동사구이며, ‘別汁’이 그 목적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작용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楊上善의 경우 濟泌別汁하여 下焦의 氣液이 膀胱으로 滲入된다고 하였으며, 膀胱은 尿脬라 했으므로¹¹⁾ 소화된 水穀 중 소변이 될 것을 걸러내는 작용으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장 중에 『難經』의 문장을 인용해 ‘主分別清濁而不內’라 한 것으로 볼 때 濟泌別汁과 分別清濁을 같은 작용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張介賓은 濟泌別汁을 통해 膀胱으로 스며든 津液과 迴腸으로 들어간 糟粕이 각각 소변과 대변을 이루어 배설된다고 설명했다.¹²⁾ 이 밖에 注家들도 濟泌別汁

이 大小便을 구분하는 작용이며 分別清濁과 가리키는 바가 같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견해는 작용부위에 대한 설명에도 드러난다. 張介賓은 이 작용이 배꼽 위 一寸인 水分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했고,¹³⁾ 楊繼洲는 『鍼灸大成』에서 水分穴의 명칭이 小腸下口에서 水液과 渣滓가 膀胱과 大腸으로 나뉘는 의미한다고 풀이했다.¹⁴⁾

2) 「營衛生會」의 서술 내용과 구조

濟泌別汁이 사용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營衛生會」의 주요 문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黃帝問于岐伯曰 人焉受氣, 陰陽焉會, 何氣爲營, 何氣爲衛, 營安從生, 衛于焉會. 老壯不同氣, 陰陽異位, 願聞其會.

岐伯答曰 人受氣于穀, 穀入于胃, 以傳與肺, 五藏六府, 皆以受氣, 其清者爲營, 濁者爲衛, 營在脈中, 衛在脈外, 營周不休, ……15)

篇名에 드러나듯 「營衛生會」는 營衛氣의 生成과 運行을 설명했다. 논의를 촉발한 최초 질문은 인체의 氣의 根源과 營衛의 生成 및 運行에 관한 것이며, 이 篇의 전체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드러낸다. 岐伯은 사람이 水穀에서 氣를 받으며, 清氣와 濁氣가 각각 營氣와 衛氣가 되어 脈中과 脈外를 운행한다고 답했다.

黃帝曰 願聞營衛之所行, 皆何道從來.

岐伯答曰 營出于中焦, 衛出于下焦.

由此別滲膀胱, 從前而出”(經絡類·營衛三焦)

6)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359. “濟, 沛同, 猶灑灑也. 泌, 如狹流也. 別汁, 分別清濁也.”(經絡類·營衛三焦)
7) 郭霽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釋.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181. “濟與擠通……泌指水言, 汁指液言. 本句是說穀物在吸收消化中, 擠去其水, 別留清濁, 分別清液, 分別清濁, 循下焦而滲入膀胱.”
8) 黃元御 撰. 黃元御醫書十一種(上冊·靈樞縣解). 河北.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22.
9)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5. p.187. “然下焦者, 別于迴腸, 注于膀胱, 故水穀者常并居于胃中, 盛糟粕而俱下于大腸, 泌別汁, 循下焦而滲入膀胱.”
10) 張燦理, 徐國仔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6. p.131.
11) 左合昌美 校正. 黃帝內經素問新校正. 日本內經醫學會. 2010. p.158. “下焦在臍下當膀胱上口, 主分別清濁而不內, 此下焦處也. 濟泌別汁, 循下焦, 滲入膀胱, 此下焦氣液也. 膀胱, 尿脬也.”(卷十二·營衛氣)
12)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359. “糟粕由此別行迴腸, 從後而出, 津液

13)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359. “別迴腸者, 謂水穀并居胃中, 傳化於小腸, 當臍上一寸水分穴處, ……凡自水分穴而下, 皆下焦之部分也.”
14) 楊繼洲. 鍼灸大成校釋(第2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p.760. “水分, 一名分水. 下腕下一寸, 臍上一寸, 穴當小腸下口. 至是而泌別清濁, 水液入膀胱, 渣滓入大腸, 故曰水分.”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19.

黃帝曰 願聞三焦之所出.”¹⁶⁾

이어서 黃帝는 營衛의 운행이 어떤 경로를 따라 나오는가를 물었다. 岐伯은 營氣는 中焦, 衛氣는 下焦에서 나온다고 답했고, 黃帝는 다시 ‘三焦의 出하는 바’를 물었다. 이를 통해 三焦에 관한 이후의 설명이 營衛의 운행에 대한 질문에서 파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岐伯答曰 上焦出于胃上口, 竝咽以上, 貫膈而布胸中, 走腋, 循太陰之分而行, 還至陽明, 上至舌, 下足陽明……

黃帝曰 願聞中焦之所出. 岐伯答曰 中焦亦並胃中,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于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莫貴于此, 故獨得行于經隧, 命曰營氣……¹⁷⁾

앞서의 질문에 대해 岐伯은 上焦, 中焦, 下焦의 순서로 각기 出하는 바를 답하였다. 본론의 서두에 기재한 下焦에 대한 설명은 위 문장들의 아래 단락에 위치한다.

中焦에 관한 설명 중에는 ‘泌糟粕’라 한 것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泌’는 ‘糟粕을 걸러내다’는 뜻의 동사로 해석될 수 있다. 같은 篇의 문장 중에 이러한 예가 있으므로 ‘濟泌別汁’에서의 ‘泌’ 역시 ‘水(狹流)’로 풀이하기보다는, ‘濟’와 함께 동사구를 이루어 ‘걸러내다’, 혹은 ‘짜서 제거하다’를 뜻한다고 풀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같은 문장에 ‘津液을 蒸化하여 精微를 肺脈으로 上注’하는 과정을 서술했으므로 이후에 나타나는 ‘別汁’은 ‘中焦에서 蒸化시킨 津液 外의 별도의 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上焦와 中焦를 살펴보면, 上焦는 胃上口를 따라 出하여 咽, 胸中, 腋, 太陰之分 등을 따라 순행한다.

中焦는 上焦의 다음으로 나오는데 음식이 胃에 들어가 津液을 썬서 肺로 上注하고 血을 이룬다. 이는 水穀의 소화에 따라 생겨난 三焦의 氣가 순행하는 부위를 서술한 것으로, 모두 精氣¹⁸⁾의 발생 경로에 해당한다. 앞서 岐伯은 營氣와 衛氣가 각기 中焦와 下焦에서 出한다고 말했는데,¹⁹⁾ 中焦를 설명한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營氣의 순행을 언급한 것을 볼 수 있다. 직접 언급된 것은 없으나, 맥락상 下焦의 작용 역시 衛氣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黃帝曰 善. 余聞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 此之謂也.²⁰⁾

「營衛生會」는 마지막 문장에서 三焦의 작용을 ‘霧’, ‘漚’, ‘瀆’에 비유하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下焦는 ‘瀆’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곳, 즉 배설의 의미로 설명되었다. 楊上善의 경우 직접적으로 소변(溲)을 언급했고,²¹⁾ 章楠은 水液과 찌꺼기(滓濁)가 나온다고 했으며,²²⁾ 張介賓도 ‘出而不納, 逝而不反’²³⁾이라 하여 배설에 중점을 두어 설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19.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p.119-120.

18) 「營衛生會」에서는 營衛를 가리켜 精氣라 하였다.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20. “營衛者, 精氣也.”) 이때의 精氣는 水穀의 精微한 氣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360. “營衛之氣, 雖分清濁, 然皆水穀之精華, 故曰營衛者, 精氣也.”)

19) 衛氣가 出하는 곳이 下焦가 아니라 上焦로 보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어 『太素』에는 ‘衛出于下焦’가 ‘衛出于上焦’로 되어있으며, 張志聰도 上焦로 설명했다. 그러나 張介賓, 黃元御 등은 陽氣 발생의 뿌리가 下焦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衛氣가 나오는 곳은 下焦로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20.

21) 左合昌美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日本內經醫學會. 2010. p.159. “下焦之氣溲液等如溝瀆, 流在地也.”(卷十二·營衛氣)

22) 章楠. 靈素節注類編.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68. “水液滓濁, 皆出于下焦, 故如瀆.”(營衛經絡總論·營衛生會)

23)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360. “瀆者, 水所注泄, 言下焦主出而不納, 逝而不反, 故曰下焦如瀆也.”(經絡類·營衛三焦)

명했다.

살펴본 것처럼 「營衛生會」의 내용은 黃帝의 첫 번째 질문인 ‘인체의 氣가 어디서 생겨나고 운행하는지’에 대한 대답이며, 그것이 三焦라는 구조를 통해 서술되었다. 논의의 초점은 精氣인 營衛의 생성과 운행에 있으며, 三焦는 水穀이 하강하는 통로인 동시에 精氣가 생성되고 상승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下焦와 濟泌別汁의 작용 역시 精氣의 생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分別清濁

三焦者何稟, 何生, 何始, 何終. 其治常在何許. 可曉以不.

然, 三焦者, 水穀之道路, 氣之所終始也.

上焦者, 在心下, 下鬲, 在胃上口, 主納而不出, 其治在膻中, 玉堂下一寸六分, 直兩乳間陷者是.

中焦者, 在胃中脘, 不上不下, 主腐熟水穀, 其治在臍旁.

下焦者, 當膀胱上口, 主分別清濁, 主出而不納, 以傳導也, 其治在齊下一寸.

故名曰三焦. 其府, 在氣街.”(難經·三十一難)²⁴⁾

分別清濁은 『難經·三十一難』의 下焦에 대한 설명에 나타난다. 下焦는 위치가 膀胱上口에 해당하고, 分別清濁의 기능을 주관하며, 내보내지 듣이지 않으므로써 傳導한다고 설명했다. 「營衛生會」의 別廻腸이 膀胱上口에 대응되며, 濟泌別汁이 分別清濁으로 대응된다.

1) 分別清濁에 대한 기존의 해석

관련된 注釋들을 살펴보면 『難經集注』에서는 “主通利溲便, 以時下而傳, 故曰出而不內也.”라 하였고, 『難經經釋』에서는 “清者, 入於膀胱而爲溺, 濁者, 入於大腸而爲滓穢.”라 하여 모두 水穀의 배설과정 중

대소변이 나뉘는 작용으로 설명했다. 『難經正義』²⁵⁾, 『難經古義』²⁶⁾, 『難經衷腋』²⁷⁾의 해석도 모두 비슷하다. 『難經本義』의 경우는 『靈樞·營衛生會』를 직접 인용하여 濟泌別汁과 分別清濁을 같은 작용으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²⁸⁾

2) 「三十一難」의 서술 내용과 구조

「三十一難」은 三焦가 무엇에서 품부받고 생하며, 그 처음과 끝, 치료는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된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三焦는 水穀의 道路이며 氣의 처음과 끝”이라는 大綱을 말하고, 이어서 上中下로 나누어 각론하였다. 「營衛生會」와 비교하면 三焦의 부위와 작용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구성이 유사하고, 치료 위치를 부연했다는 차이가 있다.

三焦 작용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표현은 ‘出納’이다. 上焦는 들이지만 내보내지 않고, 中焦는 올리거나 내리지 않으며, 下焦는 내보내지만 들이지 않는다. 이는 水穀의 이동을 위주로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앞서 三焦의 본질을 水穀의 道路로 규정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며 精氣의 생성과 운행을 위주로 서술한 「營衛生會」와 대비된다. 上焦와 中焦에 대한 설명을 비교해보면 「營衛生會」는 氣와 津液이 출하는 바를 서술했고, 발생한 精氣의 순행 방향에 따라 상승하고 확산되는 방향으로 부위를 기술했다. 반면 「三十一難」의 경우 上焦의 부위를 心下, 下鬲, 胃上口的 순으로 기술했는데 받아들인(納) 水穀의 이동과정과 일치한다. 中焦는 水穀의 腐熟을 주하며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三十

25) 金容辰, 尹暢烈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575. “下焦者, 當膀胱上口, 乃關門之分. 蓋由此清者, 入於膀胱而爲氣爲溺, 濁者, 入於大腸而爲滓爲穢, 故主出而不納, 以傳導也.”

26) 金容辰, 尹暢烈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576. “下焦之出而不內者, 泌水液, 轉糟粕, 此其職也, 失職則癰閉, 秘結, 溺數, 瀉痢等證, 立而蜂起”

27) 金容辰, 尹暢烈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577. “是經言三焦施化如此, 水穀入于胃, 出上焦爲衛氣, 出中焦爲營氣, 其糟粕津液, 傳于下焦, 爲溲便, 皆三焦所司也.”

28) 金容辰, 尹暢烈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572.

24) 전국한의학대학교 원전학교실 편. 難經. 서울. 2010. p.86.

一難」에서의 三焦는 水穀의 이동을 위주로 서술되었으므로 下焦의 작용 역시 水穀의 배설을 설명한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濟泌別汁과 泌別清濁이 나타난 문장을 비교해보면 「營衛生會」의 경우 濟泌別汁에 이어 ‘循下焦而滲入膀胱焉’라 했으므로 濟泌別汁은 그 결과물을 膀胱로 이동시키는 작용을 의미한다. 반면 「三十一難」에서는 分別清濁에 이어 ‘主出而不納，以傳導也’라 말했는데 大腸의 기능을 비유하는 관직이 ‘傳道之官’임을 상기해볼 때, 分別清濁은 그 결과물을 大腸으로 이동시키는 작용을 의미한다. 즉, 濟泌別汁과 分別清濁이 腐熟된 水穀을 분별하는 동일한 작용을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전자는 膀胱으로 滲入되는 津液에 중점을 둔 설명이고, 후자는 大腸으로 傳導되는 大便에 중점을 둔 설명임을 알 수 있다.

III. 考 察

1. 膀胱으로 滲入된 津液과 소변의 관계

지금까지 『靈樞·營衛生會』와 『難經·三十一難』의 분석을 통해 파악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營衛生會」의 三焦는 精氣의 생성과 운행을 위주로 서술되었고, 「三十一難」의 三焦는 水穀의 이동에 따른 섭취, 소화, 배설 과정을 위주로 서술되었다. 둘째, 濟泌別汁은 下焦에서 흡수한 津液을 膀胱으로 滲入하는 것에, 分別清濁은 남은 찌꺼기를 大腸으로 傳導하는 것에 중점을 둔 설명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注家들은 濟泌別汁과 分別清濁의 결과로 膀胱에 흘러든 津液이 소변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이를 따른다면 「營衛生會」의 下焦에 관한 설명은 精氣의 관점으로 해석될 수 없고, 篇 전체가 精氣의 생성과 운행이라는 통일된 구조를 가진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두 가지 결과가 합치되기 위해서는 膀胱의 津液이 精氣로서 해석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 柳는 膀胱에 모인 津液이 단순한 노폐물이 아니라 衛氣나 精血 생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²⁹⁾ 이에 관련된 문헌의 내용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素問·經脈別論』에서는 胃로 들어온 飲水의 운행 과정을 “飲入於胃，遊溢精氣，上輸於脾，脾氣散精，上歸於肺，通調水道，下輸膀胱，水精四布，五經並行”이라 설명했다.³⁰⁾ 이때 膀胱으로 轉輸된 대상을 ‘水精’이라 했는데 소변을 가리켜 ‘精’이라 했을지 의심스럽다. 소변이 四布되거나 五經으로 並行한다는 표현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素問·靈蘭秘典論』과 『素問·刺法論』에서 膀胱이 藏하는 대상을 각각 ‘津液’³¹⁾과 ‘精液’³²⁾이라 설명하고, 小便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黃帝內經』의 作者들이 膀胱을 단순히 소변의 저장소로만 인식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언급된 ‘水精’이나 ‘津液’을 인체를 순행하는 포괄적 의미의 津液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營衛生會」에서 下焦를 비유한 ‘瀆’의 의미도 다시 새겨볼 수 있다. 注家들은 도량이나 수로를 뜻하는 ‘瀆’이 배설 통로를 뜻한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논밭 사이에 도량을 설치하는 일차적 목적은 물을 대는 것이며, 동시에 넘치는 물을 고이지 않도록 배출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즉 ‘瀆’이 반드시 배설 통로로만 해석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은 의문들이 있으나 『黃帝內經』이나 『難經』에는 膀胱의 津液과 소변의 관계를 단정할 만큼의 명확한 설명이 없다. 따라서 비교적 가까운 시대의 著作인 『諸病源候論』(610)과 『備急千金要方』(7C)의 내용을 통해 참고로 삼고자 한다.³³⁾ 『諸病源候論·諸淋候』에서는 소변의 생성과정에 대해 “水

29) 柳姪娥 外 2人. 水穀의 人體內 代謝過程 설명모델.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1(1). 2007. pp.74-75.

3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86.

3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34. “膀胱者，州都之官，津液藏焉，氣化則能出矣.”

3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286. “膀胱者，州都之官，精液藏焉，氣化則能出矣，刺膀胱之源.”

33) 『傷寒論』, 『金匱要略』처럼 보다 앞선 시기의 문헌도 있으나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 특기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諸病源候論』과 『備急千金要方』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저작이며, 泌別清濁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저술되었다는 점에서 참고 가치가 높은 문헌으로 생각된다.

入小腸，下于胞，行于陰，爲溲便也。腎氣通于陰，陰，津液下流之道也。”³⁴⁾라 하여 水가 小腸을 통해 胞로 들어가면 前陰을 통해 小便으로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소변이 小腸에서 흡수된 水에서 기원한다는 점은 濟泌別汁을 대소변의 분리로 보는 注家들의 견해에 합치되나 胞가 膀胱을 가리키는지는 분명치 않다. 한편 「膀胱病候」에서는 “五穀五味之津液，悉歸于膀胱，氣化分入血脈，以成骨髓也，而津液之餘者，入胞則爲小便。”³⁵⁾라 하였다. 즉 膀胱의 津液은 氣化를 통해 血脈으로 들어가 骨髓을 이루는 원료이며, 그 나머지가 胞에 모여 소변이 된다. 이를 통해 膀胱과 별도로 胞라는 부위개념이 설정되었다는 점³⁶⁾과 膀胱에 모인 津液이 모두 소변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諸病源候論』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小腸에서 흡수한 津液은 膀胱으로 모여 인체의 精氣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 나머지가 胞로 들어가 소변이 된다.

『備急千金要方·膀胱府脈論』에서는 “膀胱總通于五藏，所以五藏有疾即應膀胱，膀胱有疾即應胞囊。”³⁷⁾라 하여 五藏病이 膀胱에 영향을 미치며, 膀胱病이 胞囊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膀胱과 胞는 별개의 부위로 설정되었으며, 五藏의 病이 膀胱을 거쳐 胞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문장에 이어서는 “傷熱則小便不通，膀胱急，尿苦黃赤。傷寒則小便數，清白，或發石水。”³⁸⁾라 하여 寒熱에 傷한 증상이 소변에 나타남을 설명했다. 앞

선 문장과 연결해 볼 때 寒熱은 五藏 혹은 膀胱의 證이며 나열된 소변증상은 그것이 胞에 미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膀胱이 소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나 膀胱의 津液이 곧 소변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살펴본 문헌 내용에 근거할 때 膀胱의 津液은 精氣의 범주에 포함되어 해설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營衛生會」에서 언급한 三焦의 기능을 精氣의 생성과 운행 과정으로 설명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濟泌別汁은 인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津液을 흡수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中焦의 일차적인 津液 흡수과정 이후 남은 물질로 부터 別汁을 걸러내어 下焦의 精氣를 생성하는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分別清濁은 腸內의 津液이 흡수됨에 따라, 膀胱으로 흘러드는 津液(淸)과 大腸으로 傳導되는 찌꺼기(濁)로 구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처럼 濟泌別汁과 分別清濁은 같은 작용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설명으로 볼 수 있다.

2. 濟泌別汁, 分別清濁과 小腸의 泌別淸濁

泌別淸濁은 濟泌別汁, 分別淸濁과 통상적으로 별다른 의미 구별 없이 사용되었다. 실제로 같은 것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王의 연구³⁹⁾에 따르면 泌別淸濁이라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문헌은 『十四經發揮』(1341)이다. “小腸長三丈二尺，左回疊積十六曲。胃之下口，小腸上口也，在臍上二寸，水谷於是入焉。臍上一寸，爲水分穴，則小腸下口也。至是而泌別淸濁，水液入膀胱，滓穢入大腸。”이라 하였다. 위치와 작용에 대한 설명은 濟泌別汁, 分別淸濁의 설명과 일치한다. 王은 『十四經發揮』가 저술되기 이전에도 ‘泌別’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문헌이 있다고 보고했는데, 北宋 시기의 저술로 알려진 『修真十書』이다. “小腸下口曰關門，泌別而水入膀胱，其穢渣則入大腸。”이라 하여 내용이 『十四經發揮』와 같으며, 이는 『醫學入門』⁴⁰⁾이나 『東醫

34) 巢元方 撰集, 柳長華 主編. (中醫古籍精校叢書) 諸病源候論.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p.153-154.

35) 巢元方 撰集, 柳長華 主編. (中醫古籍精校叢書) 諸病源候論.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p.167-168.

36) 胞를 오줌보(脬)의 의미로 사용하여 膀胱과 구분한 예는 『靈樞·五味論』에서 처음 나타난다. 酸味の 섭취가 과했을 때 小便不通을 유발하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때 ‘膀胱之胞’라 한 것을 볼 수 있다.(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270. “少俞答曰 酸入于胃, 其氣澀以收, 上之兩焦, 弗能出入也, 不出即留于胃中, 胃中和溫, 則下注膀胱, 膀胱之胞薄以懦, 得酸則縮維, 約而不通, 水道不行, 故癢.”) 또한 그 이후로도 『類纂』, 『醫經溯回集』, 『此事難知』 등에서 膀胱과 胞를 구분한 설명들을 볼 수 있다. (白裕相 外 2人. 膀胱의 上下口 논쟁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30(2). 2017. pp.86-87.)

37) 孫思邈 原著,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703.

38) 孫思邈 原著,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703.

39) 王振國. 臟腑功能辨析. 山東中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p.20.

寶鑑』⁴¹⁾의 설명과도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자료들로 판단해볼 때 후대에 사용된 泌別清濁의 의미가 초기 문헌들에서 언급한 濟泌別汁, 分別清濁과 통한다는 설을 사실로 인정할 만하다.

의미가 통한다는 전제하에, 泌別清濁에 대한 현대의 설명이 앞서 살펴본 濟泌別汁 및 分別清濁의 의미와 부합하는지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방생리학 교과서로 사용되는 『동의생리학』과 중국에서 간행된 『中醫藏象學』⁴²⁾에 서술된 泌別清濁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작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小腸은 腐熟된 음식물의 清濁을 분별하여 ①脾氣를 통해 心肺로 전송하고, ②水液을 膀胱으로 滲入되어 소변으로 배출하며, ③糟粕을 大腸으로 운송하여 대변으로 배설한다.⁴³⁾ 이 설명에 따르면 小腸은 두 차례에 걸쳐 清濁을 구분한다. 그러나 ①은 『營衛生會』에 근거할 때 中焦의 작용이므로 下焦에 속하는 小腸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설명이며, 脾의 기능과 小腸의 기능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②와 ③은 기존의 注釋들과 같은 견해이나 앞서 고찰했듯이 膀胱으

로의 水液 흡수는 소변을 생성만을 뜻한다고 보기 어렵다. 『醫學入門』과 『東醫寶鑑』에서도 泌別清濁으로 水液과 찌꺼기가 膀胱과 大腸으로 나뉘어 들어간다고 했을 뿐 脾, 肺, 小便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膀胱에 모인 水液을 소변으로 확정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泌別清濁을 이해함에 있어 또 다른 의문은 그것이 小腸으로 귀속된 연유이다. 『靈樞·營衛生會』와 『難經·三十一難』에서는 小腸을 언급하지 않고 下焦의 작용으로만 설명했기 때문이다.⁴⁴⁾ 그러나 그 이후로 『諸病源候論』에는 膀胱으로 모인 津液이 小腸으로부터 흡수됨을 밝혔고, 『修真十書』에도 小腸의 작용으로 설명되었다. 張元素의 저술인 『臟腑標本虛實寒熱用藥式』(13C)에도 유사한 작용(分泌水穀)을 小腸의 기능으로 설명한 것을 볼 수 있다.⁴⁵⁾

이처럼 泌別清濁이 小腸의 기능으로 귀속된 까닭을 몇 가지로 추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현재 보이는 『靈樞·營衛生會』의 脫字 가능성이다. 『備急千金要方』(7C)⁴⁶⁾와 『外臺秘要』(752)⁴⁷⁾의 下焦에 대한 문장을 살펴보면 『靈樞·營衛生會』 문장의 ‘別廻腸’과 ‘注于膀胱, 而滲入焉.’ 사이에 각각 ‘其氣起胃下脘’과 ‘起胃下官’이 추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下焦는 胃下完(官)에서 시작되어 廻腸에서 나뉘므로 그 사이의 小腸을 ‘注于膀胱, 而滲入焉’의 부위로 볼 수 있다. 추측할 수 있는 또 다른

40) 李梴 編著, 陳柱杓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340. “上接胃口, 受盛其糟粕傳化, 下達膀胱廣廣腸, 泌別其清濁宣通. 小腸者, 受盛之官, 化物出焉. 凡胃中腐熟水穀, 其滓穢自胃之下口, 傳入於小腸上口, 自小腸下口, 泌別清濁. 水入膀胱上口, 滓穢入大腸上口.”(臟腑條分·小腸)

41) 許浚 原著, 李南九 懸吐註譯. (懸吐註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1. p.325. “凡胃中腐熟水穀, 其滓穢, 自胃之下口, 傳入於小腸上口, 自小腸下口, 泌別清濁. 水液入膀胱上口, 滓穢入大腸上口, 難經曰 小腸大腸會, 謂之關門, 言由關門分隔也.”(內景·小腸傳受)

42) 王琦.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2. p.109. “泌別清濁, 則泌清別濁之義, 是指將小腸消化後的飲食物, 分爲水穀精微和飲食殘渣兩個部分, 同時吸收大量的水液, 故又有“小腸主液”之謂. 小腸的泌別清濁功能, 主要體現在三个方面: 其精微物質由脾轉輸至全身, 食物殘渣通過關門下注于大腸, 代謝後之水液滲入膀胱形成尿液.”

43)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 (개정판)동의생리학. 서울. 집문당. 2014. p.231. “泌는 分泌, 別은 分別로 小腸은 胃에서 腐熟을 거친 水穀을 완전히 소화시켜 음식물 중의 淸한 부분인 정미물질과 濁한 부분인 찌꺼기로 분별하는 작용이 있다. 따라서 小腸에서 흡수한 精微는 脾氣의 升清作用에 의하러 心肺로 보내어져 全身으로 산포되고, 糟粕은 大腸으로 운송되어 肛門을 통하여 大便으로 배설되며, 水液은 膀胱으로 滲入되어 腎氣의 氣化作用에 의하여 小便으로 排出되므로 小腸이 泌別清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4) 실제로 몇몇 醫家들은 이들을 大腸의 기능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張志聰은 濟泌別汁을 大腸의 기능이라 설명했고(張志聰 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322. “大腸爲傳道之官, 主受水穀之餘, 齊泌別汁, 止夢見田野者, 大腸之氣虛也.”) 尤怡는 大腸에 寒이 있어 泌別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므로 묽은 변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尤在涇 著, 經緯代學고려한국의과대학 신계내과학교실 譯解. 金匱要略心典譯解. 과주. 집문당. 2008. p.197. “驚唐如驚之後, 水糞雜下. 大腸有寒, 故泌別不職.”)

45) 張元素 撰, 吳風全 等 主編. 臟腑標本虛實寒熱用藥式校注.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4. p.164. “小腸, 主分泌水穀, 爲受盛之官.”

46) 孫思邈 原著,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4. p.711. “論曰 下焦如瀆(瀆者如溝, 水決洩也), 其氣起胃下脘, 別廻腸, 注于膀胱而滲入焉.”

47) 胡國臣 總主編. 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王壽). 山東.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2. “冊繁論曰 下焦如瀆(瀆者, 如溝, 水決泄也), 起胃下管, 別廻腸, 注于膀胱而滲入焉.”

이유는 小腸과 大腸 사이에 津液이 방광으로 흘러가는 통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명한 작용들이 津液의 흡수와 대변의 형성을 가리킨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小腸과 大腸의 구분 기준은 腸內 소화물질의 형태와 관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죽과 같은 형태의 소화물질에서 津液이 제거되고 고형화된 모양을 보이는 지점을 ‘別廻腸’의 기준으로 삼았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부위에는 津液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管을 찾을 수 없다.⁴⁸⁾ 따라서 腸內의 津液 흡수는 그보다 앞선 부위에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膀胱 및 心과의 기능적 관계에 주목한 결과일 수 있다. 小腸과 膀胱은 手足太陽經으로 관련되며, 滲入된 津液이 膀胱으로 들어간다는 직접적 연관이 있다. 한편 소변과 관련된 여러 증상들은 대변에 비하면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泌別淸濁의 작용을 소변과 밀접하게 이해할수록 心-小腸의 表裏關係에 주목했을 가능성이 있다.

IV. 結論

본 연구는 泌別淸濁의 유래가 되었다고 여겨지는 『靈樞·營衛生會』의 濟泌別汁과 『難經·三十一難』의 分別淸濁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려는 목표로 진행되었다. 진행과정에서 각 篇의 전반적인 서술 맥락을 분석하여 근거로 삼았으며, 諸家의 注釋을 참고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靈樞·營衛生會』의 三焦는 營衛의 생성과 운행을 설명하기 위한 구조이며, 精氣의 발생을 위주로 서술되었다. 下焦는 濟泌別汁을 통해 津液을 膀胱으로 滲入하는데, 이때 膀胱에 모인 津液 역시 精氣의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難經·三十一難』의 三焦는 人氣의 근본이 되는 水穀의 이동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구조이며, 섭

취, 소화, 배설을 위주로 서술되었다. 下焦는 水穀을 내보내는 것을 주하여 찌꺼기를 大腸으로 傳導한다.

3. 濟泌別汁과 分別淸濁은 모두 ‘腐熟을 거친 水穀으로부터 津液과 찌꺼기를 구분하여 膀胱과 大腸으로 운송하는 작용’을 가리킨다. 그러나 濟泌別汁은 精氣로 사용할 수 있는 津液(別汁)의 흡수에 중점이 있고, 分別淸濁은 津液(淸)을 흡수하여 찌꺼기(濁)를 大腸으로 보내는 것에 중점을 둔 설명이다.
4. 역사적으로 泌別淸濁은 濟泌別汁과 分別淸濁에 비해 후대에 사용되었으나 의미는 서로 통한다고 볼 수 있다. 『靈樞』와 『難經』에서 下焦의 작용으로 설명되었던 것이 小腸의 기능으로 귀속된 것은 『靈樞』의 脫字 가능성, 인체 해부의 결과, 小腸-膀胱 및 小腸-心 사이의 기능적 관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한의학 서적들 중 다수는 小腸의 기능을 소변의 생성과 연관하여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導赤散을 비롯한 몇몇 처방에 관한 설명을 제외하면 실제로 小便病證에서 小腸을 치료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泌別淸濁, 혹은 濟泌別汁, 分別淸濁에 의한 津液吸收가 소변형성의 과정으로만 이해되고, 膀胱이 소변을 저장하는 장소로만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膀胱의 津液은 精氣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며, 小腸의 기능은 津液의 흡수를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배설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泌別淸濁은 소변보다는 오히려 대변의 형성과정에 가까운 설명으로 볼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지원사업(생애 첫 연구사업)(No2017R1C1B5076769)의 지원을 받아 연구 되었습니다.

48) 본문 중에 “膀胱으로 滲入된다(滲入膀胱)”라 한 것은 津液이 나뉘어 들어가는 통로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References

1. Hong WS ed.. Jeonggyo hwangjenaegyong Somun.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사. 1985.
2. Hong WS. Jeonggyo hwangjenaegyong YoungChu.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사. 1985.
3. Sagou M. annot.. Huandineijingtaishu. Community of Neijing in Japan. 2010.
左合昌美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日本內經醫學會. 2010.
4. Zhang CJ, Xu GQ. Zhenjiujiaying jing xiaozhu. Sanheshi.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8.
張稼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6.
5. Wang B ed.. Zhongguangbushu Huangdineijing Suwen. Beijing. Zhongyi Gujichubanshe. 2015.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5.
6. Zhang JB original work, Lee NG annot.. Leijing. Seoul. Beobin publisher. 2006.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민문화사. 2006.
7. Guo AC. Hwuandineijing Lingshu Xiaozhuyushi. Tianjin. Tianjin Kexuejishu Chubanshe. 1992.
郭霽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釋.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8. Huang YY. Huang Yuanyu Yishe shiyizhong(Suwenxianjie). Hebei.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0.
黃元御 撰. 黃元御醫書十一種(上冊·靈樞縣解). 河北. 人民衛生出版社. 1990.
9. Zhang N. Lingsu Jiezhuibian. Zhejiang. Zhejiang Kexuejishu Chubanshe. 1986.
章楠. 靈素節注類編.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10. Zhang JC. Huangdineijinglingshu Jizhu. Beijing. Xueyuan Chubanshe. 2008.
張志聰. 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8.
11.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of all the colleges of Korean medicine ed.. Nanjing. Seoul. Beobin publisher. 2010.
전국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편. 難經. 서울. 2010.
12. Kim YJ, Yoon CY. Nanjing Yeongujipsung. Daejeon. Jumin Publisher. 2007.
金容辰, 尹暢烈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 출판사. 2007.
13. Chai YF. Zhubingyuanhoulin(Zhongyi gujijingziaocongshu). Beijing. Beijing Kexuejishu Chubanshe. 2016.
巢元方 撰集, 柳長華 主編. (中醫古籍精校叢書) 諸病源候論.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14. Sun SM. Beijiqianjinyao fangxiaoshi.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2014.
孫思邈 原著,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4.
15. Hu GC. Tangsongjinwuanmingyiwuanshudacheng (Wang Tao). Shandong. Zhongguo Zhongyiyao Chubanshe. 2006.
胡國臣 總主編. 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王燾). 山東.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16. Zhang YS. Zangfubiao benxushihanreyongyaochi Xiaozhu. Beijing. Zhongyi Gujichubanshe. 1994.
張元素 撰, 吳風全 等 主編. 臟腑標本虛實寒熱用藥式校注.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4.
17. You JJ annot.. Jinkuiyaolueshidian. Paju. Jipmundang. 2008.
尤在涇 著, 경희대학교한의과대학 신계내과학교실 譯解. 金匱要略心典譯解. 파주. 집문당. 2008.

18. Yang JZ. Zhenjiudacheng (鍼灸大成). 2nd ed.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2009.
楊繼洲. 鍼灸大成校釋(第2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19. Li C original work. Jin JP trans.. Sindaeoyeok Pyunju Yixueremen. Seoul. Beobin Publisher. 2009.
李梴 編著, 陳柱杓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9.
20. Heo J original work, Lee NG annot.. Dongyibogam. Seoul. Beobin publisher. 2011.
許浚 原著, 李南九 懸吐註譯. (懸吐註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1.
21. Physiology professors of all the colleges of Korean medicine ed.. Physiology of Oriental Medicine. Paju, Kyunggi. 2014.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 (개정판)동의 생리학. 서울. 집문당. 2014.
22. Wang Qi. Zhongyizangxiagnxue. Beijing. Renminweichengchubanshe. 2012.
王琦.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2.
23. Song JC, etc. A Review on Separation of the Clear[清] Turbid[濁] in Large & Small Intestine.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3(2). 2010. pp.225-233.
송지청 外 2人. 大小腸 泌別清濁에 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3(2). 2010. pp.225-233.
24. Liu JH, etc. Xiaochang Mibieqingzhuo Gongneng Kaobian. Jiangsuzhongyiyao. 48(4). 2016. pp.68-69.
劉巨海 外 3人. 小腸泌別清濁功能考辨. 江蘇中醫藥. 48(4). 2016. pp.68-69.
25. Oh CK, Yoon CY. The movement and transformation of the food and drink and its transpiration.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1(4). 2008. pp. 249-260.
오재근, 윤창열. 水穀의 運化와 배출.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1(4). 2008. pp. 249-260.
26. Wang WZ. Zangfugongneng Bianxi. Shandong Zhongyiyadashu. 2006. pp.19-23.
王振國. 臟腑功能辨析. 山東中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pp.19-23.
27. Lyu JA, etc. A Theory Model for Explaining Human's Catabolism and Anabolism of Food and Drink in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1(1). 2007. pp.74-75.
柳妍娥 外 2人. 水穀의 人體內 代謝過程 설명모델.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1(1). 2007. pp.74-75.
28. A Study on the Academic Discussion on the Presence of Upper and Lower Gates of Urinary Bladder.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30(2). 2017. pp.86-87.
白裕相 外 2人. 膀胱의 上下口 논쟁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30(2). 2017. pp.86-87.